

# 광산구, ICT 활용 건강관리…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안부전화 등 비대면 밀착관리  
디지털 소외계층 방문 병행

광주 광산구가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방문·유선전화 등의 비대면 서비스로 관내 노인들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된 6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첨단 기기를 지급하고, 해당 기기로 측정한 활동량, 혈압, 혈당 정보를 모바일로 전문 인력에게 전달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해당 노인들에게는 촘촘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 폰이 없는 노인은 혜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광산구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있어도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문제를 감안해 방문간호사 인력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2명의 전담 간호사가 스마트폰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 60명에 대해 매일 유선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직접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최소화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 운동 등 영역별 개선 방안(미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노인들의 경우 참여 수시로 건강을 쟁길 수 있도록 협당기, 혈압기 등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노인들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한 70대 어르신은 "코로나19



광산구 전담 간호사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생활 실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두 달에 한 번이나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방문 간호사가 매일 혈압, 혈당을 체크해 주고, 안부 전화로 말동무도 해주니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질 높은 '건강 자료'까지 확보되면서, 어르신의 병원 진료 시 적절한 처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비대면 소통으로 건강관리에 소극적이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관내

노인들의 건강을 빙틈 없는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건강관리서비스와 별도로 홀로 사는 노인 30명에게 위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 기기는 말벗 기능과 함께 복약, 동작감지, 위급 상황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춰 어르신의 우울증 해소, 정서적 안정을 돋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고려인마을 임대차계약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

광산구, 모국어 번역본 지원

광주 광산구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아)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해 외국인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국어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고려인마을은 물론 하남공



단, 평동공단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외국어로 번역한 임대차계약서를 평동, 하남동, 월곡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온라인으로 협력·소통”

광산구 영상시스템 구축…구정행사 실시간 중계서비스

이달부터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영상 중계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으로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구청사 3개 시설(2층 상황실, 6층 전산교육장, 7층 윤상원홀)에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구축했다.

HD카메라 및 통합방송장비, 대형 디스플레이, 내·외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추고 구청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를 고화질 영상으로 송출하는 온·오프라인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광산구는 자체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광산-LIVE(라이브)'를 통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광산구의 주요 행사를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별도 가입 없이 광산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광산ON'에 링크된 '광산-LIVE' 배너에 접속만 하면 된다. 최대 500명까지 실시간으로 구정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맷글을 통해 의견을 내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은 비대면, 디지털 소통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하게 구정을 공유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광산구 직원도 행정포털로 최대 300명까지 '광산-LIVE'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내 TV 방송 등 기존 영상 매체로 동시에 시청도 가능



광산구 관계자들이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비대면 실시간으로 각종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하다.

광산구는 2층 상황실과 6층 전산교육장엔 오프라인 현장 참여도 및 몰입도를 향상을 위해 대형 디스플레이(비디오월)를 설치하기로 했다.

카메라 영상, PPT, 영상회의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단일 또는 분할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위축된 상황에서 디지털 영상서비스를 통해 시민, 직원의 활발한 구정 참여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정보 공유, 적극적인 회의 환경 제공으로 비대면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사장님 아카데미 장사의 神 사례집’ 발간

광주 광산구가 ‘2021년 사장님 아카데미 3기 광산 장사의 神(신)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 6월 17일 사장님 아카데미 수료한 3기 수강생 37명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180여 쪽 분량으로 ▲8주간 아카데미 별자취 및 주요 성과 ▲평소 장사에 임하는 가치관 △사장님 아카데미 신청 계기 ▲개인의 특장점 ▲아카데미를 통해 달라진 모습 ▲수료 소감 등 3기 수료생들의 변화하는 과정·활동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장님 아카데미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배웠다’, ‘동기 사장님들의 열정을 본받고 함께 할 동료의 인연을 맺었다’, ‘소상공인들의 밀알이 돼 다른 사람을 돋겠다’ 등 수료생의 소감, 향후 골목상권 멘



토 활동에 대한 다짐도 담아냈다.

광산구는 사장님 아카데미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자영업자들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사례집을 골목상권 곳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프로젝트다. 김유진 외식업컨설턴트의 지도로 3년간 총 100명의 광산 장사의 神을 배출했다. 3년간 수료생의 평균 매출액은 31.8%, 방문고객은 32.4%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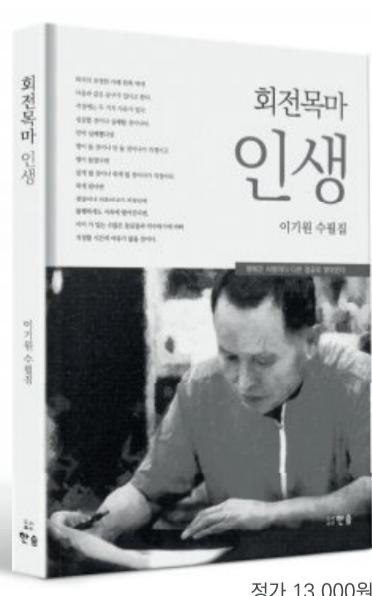
/최승렬 기자 srchoi@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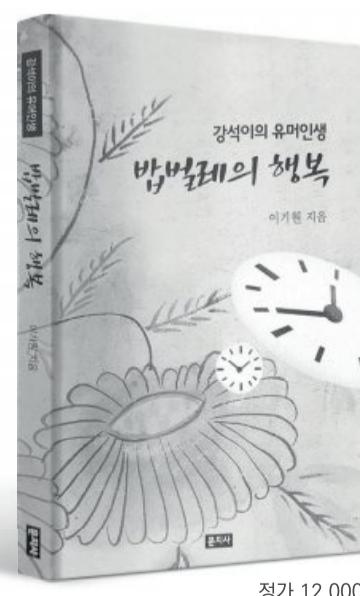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다. 안 들 것이다.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정가 12,000원

###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꿀벌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밤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새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힐링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